

분회, 격리조기이유(SEW) 돈사 준공 임박

취재 : 이 병 석

충북 음성에 격리조기이유 사업장 신축

격리조기이유(SEW)란 일반적으로 자돈의 일령에 따라 돈군을 격리 시킴으로서 전염성 질병의 감염을 최소화 하고 돼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임신, 분만, 포유단계와 조기이유(생후 10~14일)단계 및 비육출하 단계를 같은 장소에서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격리 사육하는 방법으로 3단계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사육하는 것을 뜻한다.

분회 제1종돈능력검정소에서는 '97 돼지 경제능력검정사업에 격리조기이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돈능력검정사업에 격리조기이유제도 도입에 의거하여 돼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모체로부터 질병전염 차단 효과도 도모하고자 격리조기이유(SEW)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10월 초순 준공을 목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색리에 격리조기이유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여 돈사신축을 하고 있으며, 현재(97년 9월 11일 현재) 작업진행은 약 80~90% 이상이 끝난 상황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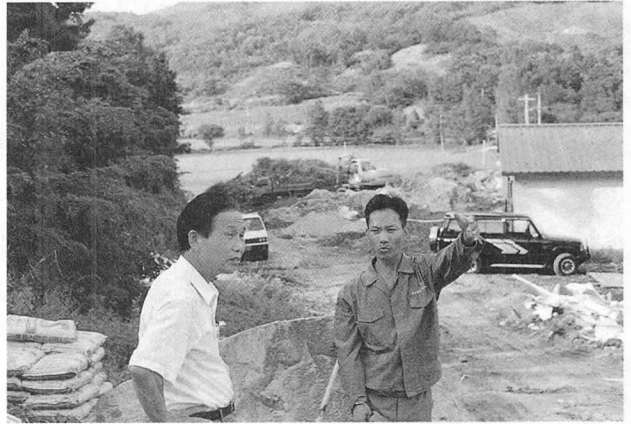
이다.

주위에는 양돈장이 없고, 뒤에 산을 등지고 건축된 검정돈사는 전체 600두의 자돈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있으며, 인공포육사 1동, 육성사 2동과 톱밥창고 1동, 사무실, 퇴비장, 관리사로 구성되어져 있다.

효과적인 질병전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SEW도입

본회 제1중돈능력검정소에서 SEW를 실시하게된 배경은 3단계(분만, 조기이유육성, 비육)격리 조기이유사육 신기술 도입에 의한 양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돈장의 질병감염률이 위축성 비염(AR) 69%, 마이코플라스마 폐렴(SEP) 72%, 복합 폐렴 80% 등 질병에 의한 생산성 저하요인이 20~25%(5~8천억원) 수준이며, 이러한 질병치료를 위한 과도한 약물 사용으로 유해물질이 잔류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됨으로 3단계 격리조기이유사육 체제에 의하여 대부분의 질병의 전염차단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SEW를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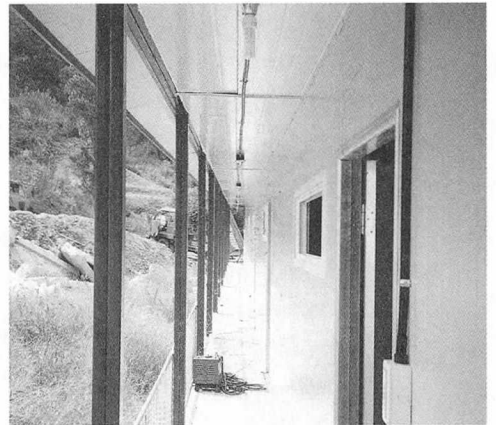
특히 격리조기이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양돈의 생산성이 10% 이상 향상가능하게 되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검정소에서 위생적인 청정 종돈이 경매 보급되기 때문에 육돈 생산농장에서 질병도입의 위험성이 적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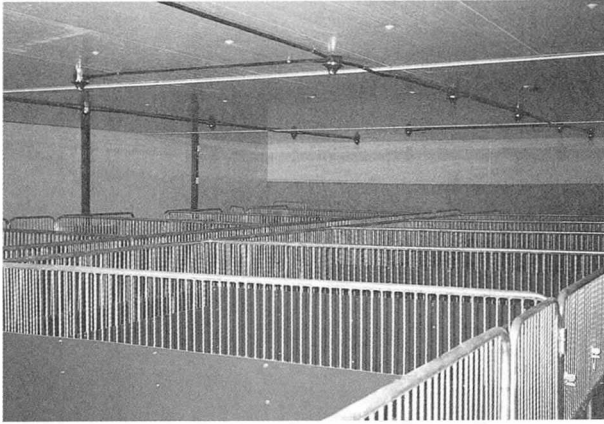
제1검정소 정숙근 소장과 격리조기이유 사업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광 과장이 공사진행상황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



인공포육사의 내부모습, 자돈이 14~16일령에 중돈장에서 이곳으로 오게되며 15kg까지 사육되게 된다.



인공포육사는 총 90평으로 10개의 방이 있으며, 1방당 3개의 칸으로 되어있어 1칸에 자돈 20두씩을 수용하게 된다.



육성사의 내부모습, 15kg된 자돈이 옮겨와 25kg까지 사육되며, 사료급여와 돈분제거 등은 관리인이 직접 수작업하게 된다.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관리사 전경

실제로 지난 94년 여름 캐나다의 퀘벡주 종돈능력검정소에서 격리조기이유(SEW) 방식에 의한 질병감염 여부와 검정성적 시험결과와 재래식 능력검정결과와 비교하여 SEW를 도입하여 검정한 결과 증체성적이 좋아서 100kg 도달일령이 21일 단축되었고, 사료요구율이 0.3개선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생후 14~16일령에 입식, 25kg에 검정소로 이동

본회 제1종돈능력검정소 격리조기이유사업장에 자돈을 출품하려면 출품돈은 생후 만 14~16일령 자돈으로 생체중이 약 4~6kg이어야 하며, 동복중 같은 성별 2두 단위로 출품하고, 출품돈은 출품자가 검정소에서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 종돈능력검정소에 인계하게 되 출품자돈의 운반은 지정 제공된 용기에 넣어 실내온도를 25℃ 정도로 유지하고 출품자돈 수용용기 및 수송차량은 철저한 수독 후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SEW검정돈사에 도착하게 되면 검정소에서는 동일주령 단위로 사양관리군 편성 및 군별로 수용하고, 돈방온도를 30℃내외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낮추면서 자돈이 25kg이 될 때까지 사육하게 되는데, 사업장 내에서도 먼저 인공포육사에 입식한

후 자돈을 15kg까지 사육하고, 다음으로 육성사에 건너가 25kg까지 사육되어진다. 그 이후에는 다시 격리된 검정돈사에 이동하여 90kg까지 사육하고 검정종료하여 90kg이상이 되었을 때 일반 농가에 보급하게 되는 방법이다.

본회 제 1종돈능력검정소 정숙근 소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격리조기이유(SEW)방식을 도입하므로 국내에 상재하는 질병을 100% 없앨 수는 없지만 위축성 비염(AR)이나 복합폐렴 등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이러한 질병들을 처치하는데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함으로 양돈농가에서 질병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養豚**